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안드레아 첫 사도 / 11월 30일

루가 제13주일

성 스틸리아노스 수사

성 알리피오스 수사

제8조 / 조과복음 3

성 요한 크리소스톨 성찬예배에서

- 제8조 부활 찬양송 / 82. A 218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성당 찬양송
- 성탄절 전 시기송 / 205. B 239
- 사도경 : 에페소 4,1-7 / 봉독서 328
- 복음경 : 루가 18,18-27 / 131. B 81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 뾰르피리오스의 지혜로운 말씀 “저의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뾰르피리오스 성인은 많은 은총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관용의 은총, 철야기도의 은총도 받으셨습니다.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 시간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중병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성인께서는 항상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

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의 기도와 함께 당신 자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병에서 치유하시든지, 아니면 병을 지속시켜 우리를 시험하고 단련하시든지, 그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우리 영혼에 가장 유익한 은총이라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선

자선의 힘은 매우 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자선은 꼭 필요합니다. 자선을 베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무의미합니다. 자선을 베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잘려나가 땔감으로 사용되는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많은 수확을 가져오듯이, 자선이라는 씨앗도 똑같습니다. 씨앗 하나를 심으면, 그것은 열 배, 백 배, 그리고 더 많은 수의 씨앗을 만듭니다. 자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조금의 도움이라도 준다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 ‘백 배’ 이상으로 돌려주십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돈의 안전에 대해 걱정합니다. 자선은 돈과 덕을 지키는 데 가장 좋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일반 은행들은 적은 이자를 줍니다. 하지만 자선이라는 은행은 100%의 이자를 돌려줍니다. 은행에 예금을 저축하면, 많은 경우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선이라는 은행에 우리의 덕을 저축하는 것은 확실히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축한 것을 보증해주는 분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없는 사람에게 적선하는 것은 주께 빚을 주는 셈’ (잠언 19:17)이라는 말씀처럼 자선은 하느님께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선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매우 큰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는 사도 바울로께서 말씀해주십니다. “각각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내야지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II 고린토 9:7)

사도 바울로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경건한 자선의 두 가지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조건은 ‘얼마나 내야하는가?’와 관련됩니다.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자선을 하느님께 바치는 것이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풍성하게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아낌없이 자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 아끼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햇볕을 주시는 것을 아끼고 공기를 베푸는 것을 아끼고 물이나 그 밖에 다른 것을 주시는 것을 아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것을 충분히 누리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베푸는 것을 주저합니다. 반면 사치를 위한 낭비는 쉽게 합니다. 풍요로운 식탁을 위해 많은 음식을 준비하며, 또 많은 경우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음식을 허투루 남기고 쉽게 버립니다. 또 성형 수술 등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곳에 돈을 낭비하곤 합니다. 그러나 자선을 베풀 때는 손을 떨며 구두쇠가 됩니다.

경건한 자선이 큰 힘을 갖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자선을 베풀 때의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억지로 투덜거리면서 혹은 꺼리면서 자선을 베풁니다. 지금 까지 우리는 주로 억지로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뿌리칠 수 없어서 혹은 다른 사람의 강요로 자선을 베풀곤 했습니다. 심지어 더 나쁜 경우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 위

☞ 4면으로 계속

성 엘리자베스 대공작 부인, 수녀순교자



엘리자베스 성녀는 제정 러시아 말기에 살았던 알렉산드라 황후의 손위 자매로서, 모스크바의 총독이었던 세르게이 대공작과 결혼하였다. 성녀는 본래 개신교인이었으나 후에 정교인이 되었고, 당시 사회의 여러 계층 출신 여성들을 조직하여 전쟁에 나가거나 병원에 있는 군인들을 돋게 하였다.

성녀의 남편 세르게이 대공작은 1905년 2월 4일 암살자가 던진 폭탄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녀는 감옥으로 살인자를 찾아가 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도록 설득하였다.

자신의 모든 값비싼 보물들과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뒤, 성녀는 정교회의 수녀가 되었으며, 자신의 남은 삶을 러시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였고, 모스크바의 마르타와 마리아 집을 여성의 쉼터와 가난한 이들의 안식처로 기증하였다. 이 집과 부속 건물에 세워진 수녀원은 모스크바 각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장소가 되었으며, 귀족이나 부유하고 나이 지긋한 여성들이 러시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돋기 위해 자선을 베푸는 중심지가 되었다. 결국 볼셰비키 혁명을 주도한 공산주의자들은 수녀원을 폐쇄하고 성녀를 우랄 산맥 지역으로 유배 보냈으며, 1918년 7월 18일 — 자매인 알렉산드라 황후와 전 가족을 살해한 하루 뒤 — 성녀와 동료 수녀인 바르바라, 충실한 친구들, 성녀와 함께한 여러 왕자들을 알라파예브스크에 있는 한 벼려진 철광의 수직 통로에 산 채로 던져 넣었다. 성녀는 간도 안에서 죽어가는 동안 성가를 불렀으며, 이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수류탄을 집어던지고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넣었다.

1920년에 성녀와 바르바라 수녀의 시신은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성 마리아 마그달리니 성당에 묻혔으며, 오늘날까지 그곳에 남아있다.

▶ 아타나시아

☞ 2면에서 계속

해서 자선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선을 베풀지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마태오 6:3)는 주님의 말씀을 어기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선은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로께서는 이

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우리나라 베푸십시오. 베푸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마음 속으로 기뻐하며 웃는 얼굴로 베푸십시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기쁨으로 베푸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 암브로시オス 조성암 대주교

양구 성 안드레아 수도원의 축일을 축하합니다

오는 11월 30일(목) 축일을 맞이하는 양구 성 안드레아 수도원의 축일을 축하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성 안드레아 사도의 중보로 영적으로 더욱 더 성장하는 수도원이 되길 기원합니다.

소식

대교구

■ 철야 예배 ▷ 오는 12월 1~2일에 양구 성 안드레아 수도원에서 철야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1일 금요일에 출발하여 2일 토요일에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숙소 예약과 식사 준비를 위해 필요하니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사무실로 11월 26일까지 꼭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는 2만 원입니다.

■ 구세주 변모 수도원 방문 ▷ 지난 11월 12일 주일에 슬라브어 사용 신자들은 로만 카프착 신부와 함께 구세주 변모 수도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소티리オス 대주교와 로만 카프착 사제가 집전한 성찬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사랑의 오찬을 함께

나누면서 소티리オス 대주교의 영적 말씀을 듣고, 수도원 주변에 낙엽 등 깨끗이 청소하고 정돈하였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암브로시オス 조성암 대주교 NCCK 회장직 퇴임 ▷ 지난 11월 20일(월)에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66회기 총회에서, 올 한해 회장직을 맡으셨던 암브로시オス 조성암 대주교께서 임기를 다하시고 위임식을 통해 다른 분에게 회장직을 이양했습니다. 정교회에서 회장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NCCK 회장직을 맡아 수고해주신 대주교님께 하느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주간 예식

- 11월 30일(목) ▷ 성 안드레아 첫 사도 축일
- 12월 2일(토) ▷ 성 뾰르피리オス 수도사제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